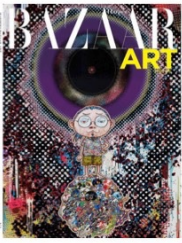


PRESSBOOK

Takashi MURAKA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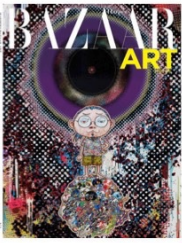
Harper's Bazaar Art

March 2016



TAKASHI MURAKAMI

작년 가을, <바자>는 도쿄 미술관에서 개막한 <구라카미 다카사: 500 나한> 오프닝 행사를 소개한 바 있다. 몇 달을 사에 두고 부라카미는 요코하마 미술관에서 자신의 수업을 소개하는 <수업실용 컬렉션: 쇼와와 로스킨의 인형을 기리기> (원: 오카자키)를 개최하면서 일본 미술계의 이목을 끌었다. 도쿄 미술관 오프닝에서는 온갖 수도를 입고 변화하는 제스처와 움직임을 보였던 그가 요코하마에서는 '인제 기조'처럼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평평의 시기에 놓인 이 예술가는 자문 어떤 일부를 잃고 있음에 감동하여 입더부라카미 다카사의 예술 세계를 향한 여행길에 나섰다. 레디/인용진



Harper's Bazaar Art
March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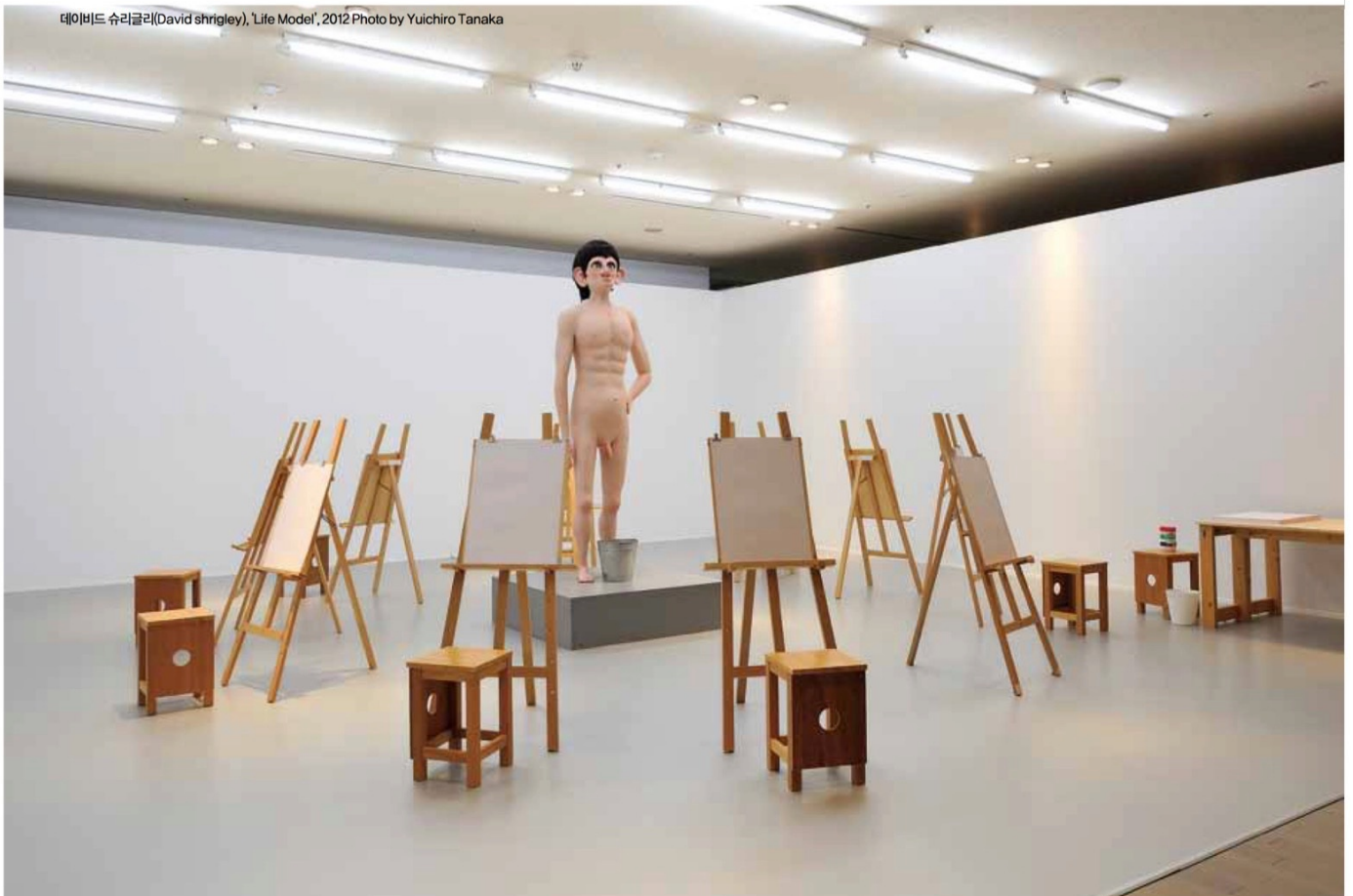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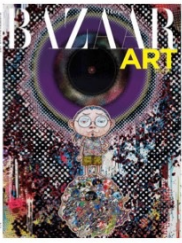
소가 쇼하쿠(Soga Shōhaku), 'Teika, Jakuren, and Saigyō', Middle of Edo period

노부요시 아라키(Nobuyoshi Araki), 'Sentimental Journey', 1971(2015 Print)
© Nobuyoshi Araki, Courtesy of Taka Ishii Gallery, Tokyo



데이비드 슈리글리(David Shrigley), 'Life Model', 2012 Photo by Yuichiro Tanaka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Merkaba', 2010
© Anselm Kiefer, Courtesy Gagosian Gallery, Photo by Charles Dupr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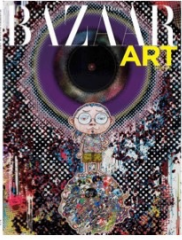
요코하마에 도착하자 무라카미 다카시의 아트 컬렉션을 소개하는 전시 포스터가 나를 맞는다. 나라 요시토모와 우고 룬다노네의 조각, 서로 다른 시대의 도자기들, 불상, 그림 등이 빼곡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카운트다운 풍경 속에서 기묘도 차림의 무라카미는 편안한 표정이고 그 옆에는 총명해 보이는 강아지가 의젓하게 카메라를 응시한다. (풀이라는 이름의 이 강아지는 무라카미의 카이카이키키 스튜디오에서 잠도 같이 지는 사이라고 한다.) 이 풍경은 그대로 전시장 안으로 이동해 '무라카미 다카시의 두뇌 속 세계(The World Inside Takashi Murakami's Brain)'라는 제목을 달고 천고 높은 공간을 차지하며 관람객에게 인상적인 순간을 선사한다.

미술관에 들어서자 2층 높이에 개방감 넘치는 공간을 무라카미는 몇몇 SF영화가 클라주된 풍경으로 만들어놓았다. 우선 항공기 파편을 사용한 안젤름 키퍼의 'Merkaba'(2010)와 동물 가족을 일기설기 엮어 볼 때마다 존엄하고도 귀여운 괴물 같은 장 후안의 'Hero No.1'(2008)이 그로테스크하고 목격하게 중심을 잡는다. 후드에 트래킹 부츠, 백팩을 멘 2.7미터의 두 거인(마틴 호넷의 'Giants'(2007))은 평범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호빗>의 간달프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서인지 미술관으로 잘못 차원이동한 신화적 존재들이 위장하려 애쓴 모습 같다. 계단식의 그랜드 갤러리에 꾸민 이 '조각 정원의 사공간을 교란시키는 하이라이트는 카이카이키키의 멤버인 치오 아오시마의 'City Glow'(2005). 여자, 유령, 악마, 자연 등이 '슈퍼플랫'하게 영상 속에서 유행하는 이 작품은 인스톨레이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총 5개의 색으로 이뤄진 전시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일본-유용상-아름다움'이라고 이름 붙은 색선. 대학에서 니본가(Nihon-ga)라는 일본 양식 그림을 전공하고 1990년대 일본 오타쿠 문화를 차용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일본 고전양식 회화와 현대미술, 서양과 동양 등 온갖 카테고리들을 중형무진하며 '슈퍼플랫' 개념을 발달시켜온 무라카미의 가장 오래된 열정을 보는 듯했다. 갈색의 둥근 것, 도자기, 몇 세기 전의 일본 화가들을 좋아한다는

무라카미는 매우 넓은 범위의 수준급 작품들을 자랑했다. 12세기 가마에서 만든 도자기라든가 마모야마 시기에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다도 기구, 소가 쇼하쿠나 하쿠인 에카쿠 같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필로 쓴 편지 등 무라카미가 소개하는 이 작품들을 통해 나는 일본 예술의 기원과 일본 미학의 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무라카미가 그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과 통찰력을 지녔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도예, 서예, 미식 등 다양한 분야에 능통해 도자기, 요리 레시피, 서예 등 한 사람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작품을 남긴 기타오지 로산진의 도자기들을 직접 볼 수 있어 좋았다. 최대한 좋은 작품을 가까이 두며 미적 감각을 수양하는 것을 제1의 생활방식으로 삼은 로산진이 솟아오르는 영감에 몸을 맡겨 만든 듯한 우유티 접시에는 붉은 잉어가 생동감 넘치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전시 오프닝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라카미는 총 5천여 점에 이르는 컬렉션으로 집을 꾸미지 않을뎀더러 구입과 동시에 포장된 상태로 보관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전시회에 가도 누구보다 금세 돌아본다는 그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느끼어 오는 작품들을 호방하게 구입해서 거대한 수장고에 쌓아두는 장면이 절로 그려졌다. 그는 자신이 컬렉션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 결국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자신의 탐구는 매우 친숙하고 세속적이며 낮은 수준의 생각들로 시작되었다는 무라카미는 전시장에 붙여놓은 글에서 여러 질문들을 던진다. '왜 예술작품은 그토록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가?' '왜 작품은 오래될수록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가?' '유명한 고전 명작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동시대의 걸작들을 구별 짓는 기준이 뭔가?' 등등.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을 수집이라는 행위는 <슈퍼플랫 컬렉션>이라 이름 지어진 전시를 통해 요코하마 미술관 디렉터 에리코 오사카의 말처럼 "아트를 위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것을 평행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했던 무라카미의 슈퍼플랫 가치 체계와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이벤트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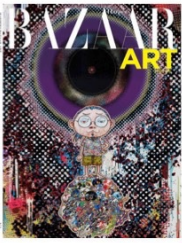


Harper's Bazaar Art
March 2016



©48981 CPH/AL, "The 500 Arhats" (White Tiger), 2012, Acrylic on Canvas Mounted on Board, 302 x 2,500cm, Private Collection
© 2012 Takashi Murakami/Pasha/K&A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Galerie Perro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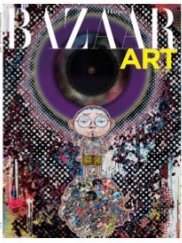
084 HARPER'S BAZAAR ART



Harper's Bazaar Art
March 2016



무라카미 다카시, 'The Birth Cry of a Universe', 2005—(in production), Gold Leaf on FRP,
451.3×268×302.8cm © 2005–2016 Takashi Murakami/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무라카미 다카시, 'Another Dimension Brushing against Your Hand', 2015.
Acrylic and Platinum Leaf on Canvas Mounted on Aluminum Frame, 180 x 240cm
© 2015 Takashi Murakami/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Galerie Perrotin

요코하마에서 컬렉션 전시가 개막했을 때 롯폰기의 모리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500 나한(The 500 Arhats)> 전시는 개막 석 달째 접어들고 있었다. 일본에서 연 14년 만의 개인전이자 마지막 전시가 될 <500 나한>에서 무라카미는 길이가 무려 1백m에 이르는, 스스로 말하길 '커리어에서 굉장히 색다른 작품이 될' 초대형 회화를 선보였다. 부처의 제자인 '나한'은 산속에서 종교적인 금욕 생활을 하며 살다가 화재나 지진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 팀처럼 나타나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돕는다. 2011년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겪으며 무라카미는 '이 시대의 본질적인 부분이 될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나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구원을 위해 종교에 의지한 적이 있다"며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마주한 도전을 건지기 위해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새로운 신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시에서 상영된 비디오 중에서.)

19세기에도 비슷한 이유로 나한들을 그린 화가가 있었다. 1855년 도쿄에서 강도 6.9의 지진이 일어나 4천 명 이상이 죽고 1만 채의 집이 무너졌다. 한 신사에서 화가 가노 가즈노부에게 5백 명의 나한을 그린 1백 개의 두루마리 그림을 부탁했고, 가즈노부는 70% 정도를 완성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나머지는 그의 아내와 조수들이 완성했다.) 무라카미는 가즈노부가 그린 5백 나한도를 세 명의 스태프와 함께 3개월 동안 면밀히 조사하고 자신의 5백 나한도로 변형해냈다. (전시에는 1백 개의 두루마리로 구성된 가즈노부의 5백 나한도와 또한 무라카미가 참고한 또 다른 옛 일본 화가 나가사와 로세즈가 가로 세로 3.1cm

의 작은 종이 위에 5백 명의 나한을 표현한 그림을 일부 소개하고 있다.) 초대형 회화를 짧은 시간 안에 제작하기 위해 카이카이키키의 스태프는 물론 일본 전역의 미대생들 중 선발된 학생을 포함해 2백 명이 넘는 인원이 제작에 참여했고 무라카미는 이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리서치 자료와 비디오, 드로잉 등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소개했다. (어떤 어시스턴트가 그린 그림을 검사하던 무라카미가 메모해놓은 "딱바로 그리란 말이야. 멍충어!" 같은 부분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 숭고한 프로젝트는 일견 내가 알던 무라카미의 작품치고는 너무 진지하고 종교적으로 보였는데 '500 나한'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자 5백 명의 나한들 캐릭터가 모두 각자의 표정과 능력을 갖고 있어 뜯어보는 재미가 있었다. 헤어스타일도 옷차림도 얼굴형도 각각 다른 나한들은 불을 쏘거나 긴 눈썹을 빙빙 돌리거나 파리채로 인간의 열망을 쫓아내거나 하면서 꽤나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무라카미의 새로운 작품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분명히 건 그가 이번 전시로 자기 예술 세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혔다는 것이다. 자연재해와 인재가 결합된 조국의 불행이 촉발시킨 생과 사에 대한 무거운 질문이 그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게끔 등 떠밀지 않았을까? 무기력을 떨치고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 무라카미는 앞으로도 '500 나한'처럼 기상천외한 프로젝트에 도전할 것이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전에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할 때이다. 그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도 같다.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결국 만들어낸다. 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프로젝트를 계속해야만 한다." **B**